

한국문헌정보학의 성장과정

- 학문체계논의를 중심으로 -

이 수 상*

〈목 차〉

- | | |
|----------------------|------------------|
| I. 문제의 제기 | 1. 새학명의 제시 배경 |
| II. 도서관학의 체계 | 2. 새학명의 채택 배경 |
| 1. 60년대의 논의 | V.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 |
| 2. 70년대의 논의 | VI. 결 론 |
| III.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의 도입 | Abstract |
| IV. 문헌정보학으로의 학명 변경 | |

I. 문제의 제기

학문으로서의 한국문헌정보학은 1950년대 후반 미국의 교육원조에 힘입어 대학과정에 도서관학이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때부터 불리워진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은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후 30년이상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명으로 변경되어 도서관학은 고전적인 학명으로 되어 버렸다. 이처럼 한국문헌정보학은 지난 반세기 가까운 세월을 거치는 동안 학명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학문의 체계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며, 그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서관학 시절에는 도서관학이 있는 것인가, 도서관학이 하나의 학문인가,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수료

도서관학이 학문성을 중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술성을 중시하는가, 도서관학이라는 학명이 과연 적합한 것인가, 대안적 학명은 없는가 하는 등의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문헌정보학 시절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시기는 대개 문헌정보학은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가, 도서관학과 정보학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한국문헌정보학의 과학성은 어떻게 정립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은 도서관학(Library Science)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물론 초창기 도서관학은 학문성보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34년 독일의 쉬레더저(Martin Schrettinger)가 정의한 도서관학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러한 경향은 충분히 설명된다. 그는 자신의 저서「도서관학 핸드북(Handbuch der Bibliothekswissenschaft)」에서 '도서관의 유효 적절한 설비에 필요한 모든 교칙(敎則)의 총체이며, 확고한 원칙 위에 체계적으로 세워진 하나의 최고원칙에 도달하는 것이다'라며 당시의 도서관학을 정의하였다.¹⁾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기술을 강조하는 이런 식의 정의는 1930년대 미국의 버틀러(Pierce Butler)에 의해 보다 과학적인 내용으로 재정의 되기까지 약 100년간 지속되었다.²⁾ 1933년 버틀러는 자신의 저서「도서관학개론(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에서 당시의 도서관학을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의 복잡한 행위를 설명하는 과학적 지식으로 구성되는 사회과학의 영역(system of social science)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된다.³⁾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도서관학은 단순한 기술성을 중시하는 실무차원을 넘어서 과

- 1) 이 정의는 Martin Schrettinger의 *Handbuch der Bibliothekswissenschaft*(Berlin : n. p., 1834)에서 제시된 것을 임종순의 *도서관학개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9) 14페이지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이다.
- 2) 이 시기를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과학으로서의 Library Science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학문의 과학성을 강조한 반면, 영국은 도서관에 대한 지식과 전문직 사서들의 교육훈련시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Librarianshi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3) Pierce Butler, *An Introduction to Library Scienc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1933), pp. xi-xvi.

학 특히 사회과학으로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론이 대두된 것이다. 그러나 학문적 인식론이 변하였다고 해도 도서관실무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학문적 전통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 시기에 들어 실질적인 과학의 학문으로서 도서관학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전까지는 도제식 전통의 현장실무 교육이나 훈련 위주였기에 학문이라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헌정보학은 1920~30년대 미국에서 재정의된 과학(특히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에 기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70년대 들어 문헌정보학은 또 한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정보처리와 관리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학을 도입하여 학문체계를 새롭게 구성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문헌정보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던 미국문헌정보학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결국 미국은 기존의 도서관학(Library Science)에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을 추가하는 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으로 학명을 변경하게 되며, 한국에서도 도서관학의 대안으로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이 등장하게 된다.

이처럼 문헌정보학의 변화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해석과 설명을 달리 할 수 있는 복잡한 인식론, 즉 학문체계에 관한 논의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다. 대체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체계 논의는 다음의 네가지로 요약되는 과정을 거쳐왔다. 첫째, 문헌정보학에 대한 사회과학성의 인식, 둘째, 정보학의 도입, 셋째, 문헌정보학으로의 학명변경, 그리고 넷째,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학문체계에 관한 논의는 비록 간헐적이었으나, 오랜 기간에 걸쳐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동안의 학문체계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한국문헌정보학이 어떠한 성장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역사적인 시각에서 해석하려고 한다. 초창기 도서관학 시절에서부터 90년대 이후 등장한 한국적 문헌정보학에 관한 논의들까지 망라하여 한국문헌정보학이 어떠한 배경에서 학문체계를 구성하려고 하였으며, 그것이 어떻게 발전·변모하게 되었는지를 당시의 텍스트나 경험을 통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도서관학의 체계

1. 60년대의 논의

한국의 도서관학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그 목적은 한국도서관에서 일할 전문직 사서를 교육훈련하여 도서관의 근대화를 실현시키려는 데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전통은 한국도서관학의 체계 확립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과목 편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물론 보다 학술적인 학문체제나 교과목을 편성하려는 시도가 없지 않았으나, 순수학문보다는 응용학문 또는 종합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의 성격 때문에 그다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대학과정의 학문으로 성립된지 10년이 훨씬 지난 1969년 도서관학에 관한 최초의 개론서⁴⁾가 출판되었으며, 그 시기를 전후하여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도서관학 체계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도서관학에 대한 몇 가지 개념적인 틀을 제시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당시에 제기된 대표적인 논의들을 통해 도서관학의 체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임종순은 일본학자들의 견해를 참조하여 도서관학을 과학, 특히 자연과학과 대별되는 사회과학으로 정의하였다.⁵⁾ 즉 도서관학은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과학이며, 교육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과 함께 사회과학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종래의 도서관학이 도서관관리법, 도서관경영법 등 기술로서의 도서관학이었다면 그가 제시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은 도서관 존립의 사회적, 교육적, 문화적 원리를 추구하고, 이에 따라 고차원적인 도서관

4) 임종순, *도서관학개론*(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69).

5) 위의 책, pp. 11-15.

봉사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도서관 실무기술로서의 도서관학보다는 과학 특히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을 최초로 정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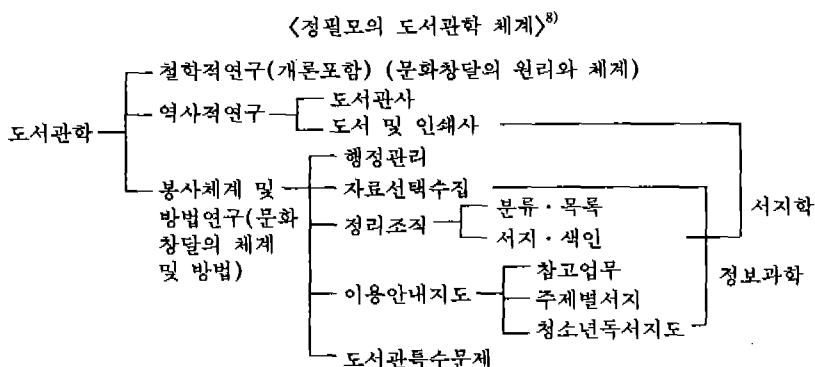
60년대에 도서관학 체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인 학자는 정필모였다. 그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 후 그에 따라 도서관학을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서관은 적극적인 '문화창달을 위한 봉사기관' 즉, 도서관은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도서 및 기타 문헌자료를 선택 수집하여 정리조직, 보전하고, 독서, 조사 연구에 효용되게 하는 봉사기관이며, 도서관학은 적극적인 문화창달의 원리와 체계 및 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것이다.⁶⁾

그러나 도서관이 문화의 창달을 위한 조건조성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이용자들의 지적인 활동에 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원리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도서관의 본질에 기초한 도서관학도 '문화창달의 경제적방법론'으로 학문의 성격과 체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그는 기존의 외국문헌에 나타난 도서관학 체계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도서관학의 체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6) 정필모, "문화창달을 위한 조건조성론 - 도서관과 도서관학", 도협월보 8권 3호 (1964. 4), pp. 3-6.

7) 정필모, "도서관학의 새로운 체계 - 문화창달의 경제적 방법론의 전개", 논문집(중앙대) 14집 (1969), pp. 79-86.



이 시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담론형성자는 당시 서울의 종로도서관장이었던 이흥구이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그는 도서관학의 학명과 체계의 문제점을 최초로 언급하였기 때문이다.⁹⁾ 그는 구라파나 미국을 중심으로 성립된 'Library Science' 또는 'Librarianship'이 도서관학이라는 동양적인 명칭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으나, 거기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학명에 관한 문제로서 도서관학이 시설과 기관명칭 뒤에 '학'자를 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미술관학, 박물관학, 구청학, 시청학 등이 성립될 수 없듯이 도서관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두번째, 학문체계는 조직적 구성, 방법론적 통일, 그리고 통일적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도서관학은 그러한 방법과 원리의 통일을 가지지 못하는 각 분과학을 도서관학이라는 개념 속에 무리하게 집어넣으려는 데서 실패하였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그는 도서관학을 정립하는 데는 도서관을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파악방법을 제시하였다.¹⁰⁾ 첫째, 그 동안 도서관학은 주로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을 보는 눈밖에 가지지 못하였기에 앞으로는 시야를 전환하여 도서관 밖에서 도서관을 하나의 사회

8) 위의 글, p. 22.

9) 이흥구, "도서관학의 문제점 -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 도협월보 11권 7호 (1970. 7), pp. 19-20.

10) 위의 글, pp. 19-20.

제도로서 파악하여 그것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한다. 둘째, 도서관은 시대와 함께 변모하는 것이므로 고정된 형태로서 시대적 단면에서 관찰하는 것보다 문화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그 본질은 더욱 명료하게 떠오를 것이다. 셋째, 도서관학의 중심과제는 도서관의 변화에 따라 당면과제를 처리하는 기술학의 영역을 벗어나 정보(광의의 지식)를 생산하고 섭취하는 인간의 본성을 파헤치고 그리고 그 정보의 특징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분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의 논객으로는 김세익도 포함된다. 김세익은 한국도서관학의 구체적인 체계를 다루기보다는 도서관학 교육문제를 다루면서 한국도서관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우선 그는 한국의 근대도서관학은 미국이나 구라파 여러나라의 도서관학의 발생동기와는 달리 뚜렷한 인식없이 거의 수동적인 상태에서 외국의 학문을 받아들였다고 비판하면서, 굳이 한국적 도서관학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도서관과 도서관학의 수준을 세계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였다.¹¹⁾ 또한 그는 한국의 도서관인들은 잠재적 불안감과 장래에 대한 불안의식으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 도서관에는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만 가득하다면 도서관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파악하고는 그 원인이 되는 도서관인들의 고민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로 분석하였다.¹²⁾ 즉 그것은 전문직에 대한 회의, 낮은 대우에 대한 불만,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 발전(자기성장)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한국도서관학 교육의 현실적인 고민은 선진국의 추세를 감안하여 도서관전문직을 양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6가지 원칙을 고려하여 교육방법의 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세익의 주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1) 김세익, “도서관학의 성립과 한국도서관학의 미래상”, 국회도서관보 4권 7호 (1967. 7), p. 19.
- 12) 김세익, “세계적 추세에서 본 한국도서관학의 일측면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 1집 (1970), pp. 106-109.

1) 도서관인들의 기본자질을 풍부히 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을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의 도서관장서는 외국어로 된 자료가 많으니 도서관인의 외국어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각종 참고자료물 비롯한 서지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지식과 그 이용법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서지부문을 보다 중시하여야 한다. 4) 사회적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자체에 대한 행정 경영학적 방법을 모색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5) 도서관봉사 자체가 하나의 도큐멘테이션 활동이기 때문에 정보과학을 도입하여 한국의 도서관발전과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6) 도서관학과와 도서관학자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한국의 도서관학의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¹³⁾

이상으로 살펴본 1960년대 후반의 도서관학 체제에 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중요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학문으로서의 도서관학이 도입된 이래 최초의 논의라는 것이다. 둘째, 도서관학이 기술 또는 기술학이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사회과학이라는 과학으로 정의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도서관학의 명칭에 대한 비판이 최초로 제시되었다. 넷째, 도서관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한 제시로서, 서양도서관학의 추세에 맞추어 한국도서관학도 불안과 회의가 없이 도서관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전문직 양성에 보다 충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어렵듯하게나마 한국도서관학에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나 정보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시기에 제기되었다.

2. 70년대의 논의

1970년대에 들어서도 도서관학의 체계화 작업은 계속되었다. 특히 김세익과 김정소의 활약이 이 시기에 돋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세익은 한국의 도서관학이 뚜렷한 방향감각을 찾지 못한 채 20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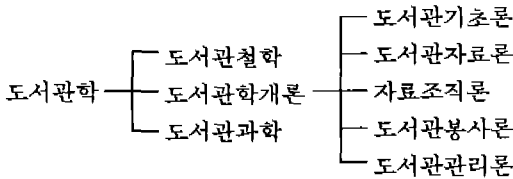
13) 위의 글, pp. 130-132.

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진단하고는, 당시의 도서관학 교육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나라에는 도서관학 교육에 있어서 박사과정에서부터 석사, 학사 그리고 2년제 전문학교 과정, 1년제 과정 또한 몇 달간의 강습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지만 그 형식과 달라 강의내용이나 훈련과정에 별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있다면 얼마나 많이 외국어를 피차에 사용하는가 하는 그 정도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 도서관학의 무성격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교육에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도서관 현장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 나라의 도서관학은 그 나라의 도서관의 현황과 무관해질 수가 없다. 도서관학의 수준이 도서관의 질을 높여야 하고 도서관의 수준이 또 그 나라의 도서관학의 질을 높여 주는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는 이와 같은 역학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못하다.¹⁴⁾

결국 도서관학은 그 나라 도서관의 현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우리나라 도서관과 같이 학생들의 자습실 또는 독서실과 같은 인상만 줄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한국의 도서관학은 당분간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도서관학은 기술인 동시에 학문이어야 하는데 기술위주로 진행될 뿐 이론적 배경은 빈약하기에, 한국도서관학의 과제는 기술적 방법론과 체계적 이론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도서관학에 있어 기술이란 이론적 배경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도서관학이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 다른 것은 그것이 기술인 동시에 학문이기에, 한국도서관학은 기술적 방법론과 체계적 이론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체제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김세익, “한국도서관학의 현황과 전망”, 국회도서관보 13권 1호(1976. 1. 2), pp. 21-22.

〈김세익의 도서관학 체계〉¹⁵⁾

김세익은 이와 같은 비판과 함께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해 나름대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먼저, 도서관학은 넓고 다양한 인간의 지적 영역에 관계되고 또한 모든 분야 학문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응용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은 성격으로 인해 도서관학은 '학문의 학문', '거대과학'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러한 인식이 오히려 도서관학의 학문적 심화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이와 더불어 정보학이나 도큐멘테이션 활동이 발전됨에 따라 도서관학의 성격구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결국 한국도서관학도 이러한 학문적 성격을 어떻게 반영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특히 그는 정보학이나 도큐멘테이션 활동이 도서관학에 미치는 영향에 주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는 도서관학과 Documentation(정보학)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함과 동시에 도서관학과 Documentation의 동질적 요소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Overlap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관학에 주입시키고 흡수하는 것이 도서관학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질적인 부분까지 취급할 필요는 없고 또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Documentation이 도서관의 상위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든지 Documentation을 말하는 사람이 진보적인 도서관학자라는 착각은 '난센스'일 것이다. 동질적 또는 동화 가능한 부분과 이질적 또는 동화 불가능한 부분을 명백히

15) 위의 글, p.22. 위의 체계에서 보면, 그동안의 한국도서관학 교육은 철학이나 과학성을 중시하는 도서관철학이나 도서관과학이 배제된 채 기술로서의 도서관학만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16) 위의 글, p. 23.

하고 도서관학의 허약한 면을 보강하는 것이 우리의 오늘의 과제가 될 것이다.¹⁷⁾

김정소는 두편의 논문을 통해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 체계를 설정하려고 시도한 학자이다. 먼저 그는 사회문화적 현상으로서의 도서관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도서관'관'의 확립을 분석검토하고, 그 '관'위에서 도서관학의 체계를 세우려고 하였다. 먼저, 그는 60년대 후반 정필모가 제시한 도서관을 통한 문화창달의 조건조성의 방법을 연구한다는 도서관학의 정의가 도서관학의 수립을 위한 정의라고 볼 수 없으며, 아울러 규범적 정의로서도 옳게 규범화하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¹⁸⁾ 그에 의하면, 도서관은 문화창달의 조건조성이란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문화를 직접 창조하는 도구(방법론적 체계)이며, 이 도구는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도서관'관'이 도서관 운영상의 기술적인 것을 중심으로 정의되었기에 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을 올바르게 수립할 수 없었으며, 스스로 도서관학을 '학'이 아니게 만들었다고도 비판하였다.¹⁹⁾

결국 그는 도서관학은 사회과학의 분과 학문으로서 다루어져야 하며, 도서관학을 사회과학의 학문적 체계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서관이라는 체계가 사회과학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탐구적 행동의 조직적 형성'으로 도서관을 정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도서관학은 사회문화적 현상인 도서관적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소 복잡하게 설명되고 있으나, 김정소가 주장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서관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과학이면서 하나의 기술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즉, 사회과학으로서 도서관학은 독자적인 도서관적 행위를 인간적, 사회적 행위속에서 찾아야 하고, 이 행위를 법칙으로 진술하기 위한 과학적 노력을 해야 하며, 또한 도서관학은 기술학으로서 도서

17) 위의 글, pp. 23-24.

18) 김정소, "도서관학의 체계화에 관한 연구 - 도서관'관'의 문제", 도서관학논집 4집 (1977), pp. 95-98.

19) 위의 글, pp. 106-107.

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도구와 체계를 만들어가야 한다. 둘째, 도서관적 행위는 '인간의 탐구적 행위의 조직적 형성'이라는 사회문화적 현상이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네가지 도서관이론으로 제시될 수 있다.

〈김정소의 도서관학 이론〉²⁰⁾

- 이론 I 1. 지적문화재의 정보화이론
- 2. 지적문화재의 경험화 즉 정보처리. 이론
- 3. 도서관인의 매개행동이론
- 이론 II 4. 도서관체제이론
- 이론 III 5. 학교의 교육활동 지도이론
- 6. 지역사회 주민의 흥미확장이론
- 7. 사회개선의 자원이론
- 이론 IV 8. 문화계승의 원리적 접근이론

이상과 같이 70년대의 도서관학 체계논의는 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의 성격을 보다 심화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김세익과 김정소 모두 기술학으로서의 도서관학보다는 (응용)사회과학으로서의 도서관학의 성격을 규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체계화 작업도 함께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서관학의 체계화 작업은 다음에 소개될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의 도입 문제로 인해 더이상 논의되지 못한 채 단절되어 버린다.

III. 도큐멘테이션과 정보학의 도입

70년대는 앞서 살펴본대로 한편으로는 도서관학의 체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도큐멘테이션이나 정보학이라는 정보관리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특히 후자의 움직임은 주로 김세익, 최

20) 김정소, "도서관학의 학문적 성격과 체계화에 관한 연구," 도서관학논집 5집(1978), pp. 13-19.

성진, 정필모 등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도큐멘테이션이나 정보학의 핵심개념은 정보의 홍수시대를 맞이하여 종전의 도서관적 방법으로는 다량의 정보를 관리하고 처리하며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서비스할 수 없으므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이러한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세익의 주장처럼, 도서관에 도큐멘테이션 활동을 도입하면, 기존의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도서관의 속성을 탈피하여 새로운 이미지의 도서관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다²¹⁾고 믿었던 것이다.²²⁾

6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 정보학이 소개되었지만, 정보학을 어떻게 정의하고, 도서관학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며, 교과과정은 어떻게 편성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는 70년대 들어 주로 이루어졌다. 최성진은 두 편의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먼저, 그는 정보학이 도서관학과 도큐멘테이션의 주변을 떠나 제 위치를 찾아야 한다면 정보학의 발생과 발달과정, 하나의 독립된 학문체계로서의 정보학, 도서관학의 한 분야로서의 정보학 등 도서관학과 정보학간의 영역설정에 관한 논쟁을 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설명하였다.²³⁾ 또한 그는 전통적인 도서관학 교육내용과 신생학문인 정보학을 통합하는 문제는 크게 세가지로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통합은 첫째, 기존 도서관학 교육과정에 정보학 과목들을 첨가하는 방법, 둘째, 도서관학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정보학 교육과정을 설치하는 방법, 셋째, 도서관학과 정보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교과과정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정보학이 도서관학과 별개의 분야라고 생각하

21) 김세익, "도큐멘테이션의 도입과 전개", 도서관 28권 6호(1973. 6), pp. 7-8.

22) 김세익에 의하면, 한국에 있어 도큐멘테이션의 사상과 개념은 1960년대 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설립될 때부터 도입되고 발전되었으며, 1966년 신학기부터 자신에 의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에서 최초로 강의되었다고 한다.

23) 최성진, "도서관학과 정보학 - 그 경계 구획을 다룬 문헌에 대한 고찰", 도서관학보(중앙대) 2집(1973), pp. 177-204

지 않기에 세번째인 수정판 교과과정을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²⁴⁾ 그러나 신·구내용 모두를 재분석하여 새로운 과목들로 조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우선 과도기적인 시안으로서 통합과목을 네가지의 기본분야 - 자료분야, 자료조직분야, 봉사(또는 이용)분야, 시스템분야 - 로 재구성하여 제시하기도 하였다.²⁵⁾

(1) 자료분야: 모든 형태의 자료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며, 세부내용은 대개 도서 및 인쇄사, 고서분야, 자료선택 및 장서평가, 수서방법, 독서흥미 및 요구조사, 학습이론, 커뮤니케이션이론 등으로 열거된다.

(2) 자료조직분야: 여기서는 서지작성, 목록 및 색인작성, 분류 등 자료조직의 이론과 기술을 다루게 된다. 이 분야의 전문과목은 각종서지, 도서관목록, 분류, 각종 특수색인법, 각종 파일조직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논리학, 수학, 언어학 등 타 학문분야가 이 분야에 공헌할 수 있다.

(3) 봉사(또는 이용)분야: 이 분야는 이용자와 사서가 만나는 구체적인 도서관 활동을 다루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참고, 정보봉사, 정보(문헌)검색, 정보선택제공, 도서관 상호대출, 신착도서안내, 자료이용법지도, 이용자의 자료이용습성, 봉사활동 등의 주제가 포함된다. 또한 이용자와 기계(또는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대한 기호순위 등 커뮤니케이션의 이론과 기술도 필요하다.

(4) 시스템분야: 이 분야는 사회정보유통장치로서의 도서관 및 기타 정보봉사기관의 기능, 목적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한다. 이 분야의 전공과목은 도서관 및 기타 정보봉사기관의 역사, 일반적인 관리원칙, 계획, 조직, 직원배치, 명령, 통제, 자료주문, 정리, 열람, 시스템분석 및 기계화, 홍보활동 등이 포함된다. 또한 대상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른 시스템(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기업체도서관, 정부도서관등)관리도 다루어져야 한다.

정필모도 정보학의 도입 문제를 거론하였으나, 특히 그는 정보학을 도입하여 기존의 도서관학을 문헌정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하였

24) 첫째 방법은 손쉬운 방법이나 구내용이 그대로 보존되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며, 두번째 방법은 신 구내용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양자간의 독립행동을 조장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25) 최성진, "도서관교육의 새방향 - 전통적 교육내용과 정보학의 통합문제를 중심으로", 도서관 29권 4호(1974. 4), pp. 9-14.

다. 이 문제는 다음 절에서 설명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보학은 다음의 두가지 사회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여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1960년대 이후 정보의 홍수, 정보의 폭발이라 불릴 정도로 출판문헌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관리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 두번째 요인은 금세기 최고의 발명이라고 불리는 컴퓨터의 등장으로 정보관리 분야 뿐만 아니라 도서관운영에 있어 기계화바람이 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의 변화는 도서관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우리 학문의 내용이나 성격을 새롭게 규명하도록 하였다. 결국 미국은 종래의 Library Science에서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로 학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기존의 도서관학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었다.²⁶⁾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이전부터 도서관이라는 기관명이 붙어 있는 학명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라 학명의 변경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보학의 등장은 기존의 도서관학의 내용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학명 까지도 변경되도록 하였으나, 이 외중에 60~70년대부터 꾸준히 견지되어 왔던 사회과학으로서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논의는 한동안 단절되어 버린다.

26) 실례로 미국과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도서관학과의 명칭을 바꾸어 왔는데, 1990년까지의 변천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權井宜隆, “도서관정보학의 탄생과 미래”, 북명회·신은회 역, 도서관문화 33권 3호(1992. 5. 6), p. 38. 참조.

연 도	학교수	Library(%)	Libr.&Info.(%)	Info.(%)	기타(%)
1960	32	32(100.0)			
1965	36	35(97.2)	1(2.8)		
1970	50	45(90.0)	5(10.0)		
1975	62	51(82.3)	10(16.1)	1(1.6)	
1980	68	43(63.2)	23(33.8)	1(1.5)	1(1.5)
1985	64	16(25.0)	42(65.6)	2(3.1)	4(6.2)
1990	60	8(13.3)	46(76.7)	2(3.3)	4(6.7)

IV. 문헌정보학으로의 학명 변경

한국문헌정보학의 성장과정에 있어 가장 큰 변화 한가지를 제시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학명변경일 것이다.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은 50년대 후반 미국의 'Library Science'가 도입되어 사용된 것인데, 80년대 후반부터는 그것이 문헌정보학으로 변경되게 된다. 약 30년간 사용된 학명이 변경되는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내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학명변경, 즉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명이 어떠한 배경에서 제시되었으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채택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1. 새학명의 제시 배경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거론한 학자는 리재철이다. 그는 1971년 짧은 글을 통해 도서관학의 학명을 '문헌과학' 또는 '문헌정보학' 중에 하나를 택일하여 바꾸자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

'병원학' 대신 '의학', '학교학' 대신 '교육학', '교회학' 대신 '신학', '기상대학' 대신 '기상학', '천문대학' 대신 '천문학'이라고 부르듯이 '도서관학'도 시설(institute) 명을 붙이지 말고, '문헌과학' 또는 '문헌정보학'이라고 부르자는 것이다.²⁷⁾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60년대부터 도서관학은 '도서관'이라는 '관(館)'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업무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기에 이제는 학명을 바꾸어 보자는 제안이었다. 이러한 제안을 이어받아 정필모는 여러 문헌을 통해 도서관

27) 리재철, "문헌과학과 문헌사의 소임 - 「도서관학」의 학명과 「사서」의 직명개칭을 바란다", 도서관보 26권 5호(1971. 5), pp. 1-3.

학의 대안으로 ‘문헌과학’, ‘문헌정보학’, ‘정보공학’, ‘문헌공학’, ‘정보경제학’ 등의 학명을 거듭 제안하였으나, 결국은 ‘문헌정보학’으로 귀착하였다.²⁸⁾ 리재철은 시설명이 붙은 학명을 변경하자고 한 것이라면, 정필모는 기존의 도서관학이 가지고 있는 결함을 극복하고, 당시 새로운 학문분야로 부상하게 되는 정보학을 도입하여, 새로운 학문인 문헌정보학을 형성하자고 하였다. 정필모가 여러 글을 통해 제시한 논점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의 도서관학이 가지고 있는 결함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론의 빈곤과 방법론의 비과학성 때문에 도서관학이 학문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하는 논의와 비판이 지속되었으며, 따라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둘째, 도서관학이 시설이나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의 인식, 수집, 정리, 조직 및 문헌의 운용방법을 연구하는 과학이기 때문에 도서관학이라는 명칭자체가 비논리적이며 불합리한 것이었다. 셋째, 기존의 도서관이나 도서관학은 주로 종래의 전통적인 문헌인 도서의 효용을 위주로 하고 비전문적인 일반이용자를 위한 정보와 교육적인 면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특수한 전문분야의 학자나 기술자들의 첨단적인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효용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결국 정보학의 도입이 요구되는데, 그가 제시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보학은 도서관학보다 연구범위가 넓다. 둘째, 도

28) 당시 정필모가 발표한 글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정필모, “학문명칭으로서의 ‘문헌과학’에 대한 제고”, *도협월보* 13권 9호(1972. 9), pp. 15-19.
- _____, “정보과학의 속성과 문헌정보학”, *도서관학보*(중앙대) 2집(1973), pp. 170-171.
- _____, “도서관학의 변혁 - 정보공학 또는 문헌공학으로”, *중대신문*(1974. 5. 23).
- _____,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 *한국비브리오* 2집(1974), pp. 38-65.
- _____, *문헌정보학원론: 현대도서관학*(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 _____,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0).
- _____, *정보경제학원론: 현대도서관학*(서울: 한국도서관학회, 1980).
- _____, *문헌정보학원론. 개정판*(서울: 구미무역출판부, 1983).

서관학은 이미 체계화된 일반적인 도서에 관련된 문제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정보학에서는 주로 최신의 학술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정보자료에 관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도서관학은 주로 수동적인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정보학은 주로 과학적, 기계적인 방법론이다. 넷째, 도서관학은 본래부터 이론이 빈곤하였고 과학성이 빈약하였다. 그러므로 도서관학에 정보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학의 이론과 방법론의 도입으로 도서관학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학의 이론을 근거로 한 새로운 체계화와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문헌정보학은 기존의 도서관학의 성격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환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문헌정보학의 형성논리로서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문헌정보학은 도서나 기타의 기록자료에 대한 물질적인 개념을 벗어나서 정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중시하고 그 효용을 목표로 하는 관점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문헌정보학은 정보이론을 기초로한 새로운 이론체계와 방법론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래의 '도서 및 도서관사'는 '정보진달수단의 발전사'를 포함해서 보다 광범위하게 연구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래의 '참고업무'와 '주제별서지'는 '정보조사론' 또는 '주제정보조사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래의 '도서선택'은 '정보자료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광범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분류법이나 목록법 또는 자료조직론 분야는 정보검색론이 추가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종래의 '도서관운영'은 도서관이 '정보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새학명의 채택 배경

70년대부터 문헌정보학이라는 새로운 학명이 거론되었으나, 실제로 도서관학을 문헌정보학으로 바꾸고자 한 노력은 1974년의 학과명 변경작업에서 비롯되었다. 1974년 당시 서울 소재 4개 대학 도서관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대학도서관학과교수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연대하여 학과명을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자는 데 합의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학과명칭 변경운동은 행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패하였는데, 리재철은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974년 6월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의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대학도서관학과교수협의회에서 각 대학이 연대해서 동시에 개정키로 결의를 본 새로운 학과명은 결국은 ‘문헌정보학’이었다. 당시 동 협의회에서는 관계대학총장 앞으로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학과명칭을 변경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발송하고, 해당 도서관학과에서는 각각 대학당국에 과명칭 변경신청의 품의를 올렸으나, 그 학명에 대한 학교당국과(또는) 문교당국의 이해부족으로 당시 소원을 이루지 못하였다.²⁹⁾

학과명 변경을 최초로 시도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이춘희의 회고담에도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실 약 25년전에 4개대학의 도서관학과 선생들이 모여서 학과명칭을 바꾸자는 논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서관학과라는 명칭이 아무래도 부적절하다. 도서관이라는 ‘관’자가 그게 집이라는 뜻이다. 그럼 도서관건물을 연구하는 학과냐. 병원이라는 ‘원’자가 집이라는 뜻인데 ‘병원학’이라고 하지 않고 ‘의학’이라고 하질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서관의 현상이나 내용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 그것을 학과명칭으로 해야지 도서관학과가 무엇이다. 영어의 library는 조금 다르다. library는 ‘집’이라는 뜻이 아니고 ‘도서집서’라는 뜻이 있다. 미국사람들이 Library Science라고 말하면 도서관학 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때 논의를 많이 했어요. 그 때도 문헌정보학과로 하자. 옛날부터 많이 해 온 서지학과로 붙이

29) 리재철, “문헌정보학의 학명에 대한 고찰” 정보관리학회지 7집 2권(1990. 12), p. 5.

고 내용은 그렇게 하면 된다. 또 어떤 사람은 무슨 문헌공학과로 하자느니 별 기상천외한 제안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때 문헌정보학과로 대개 통일이 되었지요. 학과명칭을 바꾸려면 그 대학의 학칙부터 바꾸어야 했어요. 교무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 학교당국으로부터 합의가 있어야 되었어요. 학교 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문교부에 제출하자고 4개 대학이 합의하였어요. 그래서 나는 수속을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중앙대학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필모 교수가 말하기를 4개 대학이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연대쪽에서 안된다고 하니 명칭변경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세대학에 물어 보니까 학교당국의 반대로 안된다고 했어요.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아야 되는 것인데.....³⁰⁾

학과명 변경에 실패한 이후 70년대에는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서에는 대학차원의 학과명 변경이 아니라 학회차원에서 학회명 변경을 시도하였다. 1982년 11월 한국도서관학회에서는 리재철, 심우준, 손정표, 이두영, 한상완등을 위원으로 하는 학회명칭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며, 1983년 4월 30일과 9월 2일 두차례에 걸친 학회명칭개정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차 세미나에서는 외국의 현황이 소개되었으며, 그 동안 문헌에서 거론되었거나 거론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16개를 3개의 명칭안 - 문헌정보학, 정보관리학(또는 정보경영학), 도서관, 정보학 - 으로 묶고 그것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표 1> 같이 발표하였다.³¹⁾

특히 당시 세미나에서 심우준은 학회명칭 개정작업의 졸속성을 우려하며 그 동안의 논의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학회명칭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학과명칭에 대한 이들 학회모임은 사학(斯學)의 진로에 관련돼 지극히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학술적인 행사이므로 마땅히 진지하고 깊이 있는 토론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회가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시종 그 여론에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학회명칭을 결정하려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는 것은

30)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 건재한가 - 이준희 박사와의 대담”, 도서관문화 35권 6호 (1994. 11 12), pp. 52-53.

31) 두번의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의 요지는 이후 정리되어 도협월보 24권 4호(1983. 7. 8)에 게재되었다.

〈표 1〉 학회명칭 설문조사 결과

명 칭 군	선정된 명칭안	학회조사결과 선호도
문헌정보학, 도서·정보학 또는 도서정보학, 정보·도서학 또는 정보도서학, 자료정보학, 정보자료학, 서지정보학	문헌정보학	84명(49%)
정보관리학, 정보경영학, 자료관리학, 문헌관리학, 문헌정보경영학 ----- 정보경제학	정보관리학 또는 정보경영학	31명(18%)
도서관, 정보학 또는 도서관정보학, 정보·도서관학 또는 정보도서관학, 도서관·정보관리학 또는 도서관정보관리학 도서관·정보학		47명(27%)
정보과학 또는 정보학, 기타		9명(6%)
계(16개)		171명(100%)

실로 크게 우려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³²⁾

한편, 1984년 11월 한국도서관학회는 학회명칭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로 개정하자는 안이 상정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게 되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부결(찬성 32, 반대 15, 기권 2표로 통과선 2/3보다 찬성표가 1표 부족)처리가 되어 결국 학회명의 변경도 실패하였다.

32) 심우준, “학회명칭자료분석과 여론조사”, 도협월보 24권 4호(1983. 7. 8), p. 2. 그가 위의 세가지 명칭 각각에 대해 우려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온 문헌정보학은 정보의 가공·검색·전달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록자료의 조직적인 수집·정리·제공을 꾀하는 지식·기술을 체계화하는 도서관영역을 거의 배제한 것이며 이것은 바로 Computer Science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정보관리학 또는 정보경영학 또한 Computer Science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셋째, 도서관·정보학은 앞의 두 학문에다 도서관학을 결합시킨 명칭일 뿐이며 이를 선택하여 교과목을 편성한다면 도서관학 교육도, 정보학 교육도 아닌 기형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70년대 학과명칭 변경과 80년대 학회명칭 변경 움직임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지만, 1985년 전남대학교를 시작으로 학과명을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는 한성대학교, 1989년은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충남대학교, 1990년에는 부산대학교, 전북대학교가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하게 되었던 것이다.³³⁾

이처럼 개별 대학 차원에서 학과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1989년 한국도서관학회는 결국 한국문헌정보학회로 학회명을 변경하게 되었으며, 학회연구지인「도서관학」도 1993년부터는 「한국문헌정보학회지」로 제호를 변경하였다. 물론 각 대학이 문헌정보학과로 학과명을 변경하게 되는 과정에는 학생회의 활동도 한 몫을 하게 된다. 그들은 대학별로 또는 연합하여 도서관학과를 문헌정보학과로 바꾸고자 하였던 것이다.³⁴⁾

그러나 이런 외중에 서울의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학과명칭 변경에 대한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내용상 1990년대 초의 일로서 이번에는 문헌정보학과 대신에 '정보학과'가 대두하게 되었으나, 채택되지는 못하였다. 이춘희의 회고담에 나타난 그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그 이후 한참 지났는가, 서울에 있는 몇 대학이 다시 모여서 논의를 했어요. 그때 안을 가져온 것이 정보학과였어요. 연세대학에서 정보학과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도서관학과장들이 합의한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학과 권기원 교수가 학과장할 적 일인데, 그래서 나는 편쩍 뛰었지요. 그건 안된다고 했어요. 정보학과라는 말은 다른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학과라고 하면 제 밭도 못 찾아

33) 일부 대학에서 도서관학의 대안으로 도서관, 정보학(또는 도서관정보학)이 거론되기도 하였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는 한동안 대학원의 명칭을 도서관·정보학과로 사용한 적이 있으며, 경성대학교에서는 문헌정보학과보다 도서관정보학과로 학명을 변경하려다 실패하여 결국 문헌정보학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한편,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를 직역한 형태의 도서관·정보학은 학회명(한국도서관·정보학회)으로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34) 학명변경 과정에 대해 연대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은 리재철의 앞의 글을 참조하면 된다.

먹고 언젠가는 교수직도 다 쫓겨나고, 문단계 생겼으니, 빨리 3개 대학 교수들과 다시 만나 재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 가지고 신촌에서 모였지요. 이제철 선생하고 연세대 교수들이 다 나오고, 이화여대 교수들, 그리고 우리 학과 교수들 전부, 3개 대학 교수들이 다 모였어요. 중앙대학은 이미 문헌정보학과로 바꾸었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요. 간단히 우리가 정보학과라 했다가 나중에 정보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게 이상하게 방향이 달라졌을 때, 우리가 설자리가 무엇이나, 이것은 안되겠다. 이전에 한번 토의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보학 중에서도 문헌만 관련된 것이라는 뜻에서 ‘문헌’자를 붙이고, 또한 이미 일부 학과에서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니 혼란을 피하고 통일한다는 의미에서도 좋으니 문헌정보학과로 하자고 내가 제의를 하였습시다. 그 때 안 서둘렀더라면 정보학과가 되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³⁵⁾

1971년 도서관학의 대안으로 문헌정보학을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는 리재철은 1990대에 이르러 비로소 문헌정보학에 대한 그 자신의 견해를 장편의 논문을 통해 밝혔다. 그는 문헌정보학을 ‘문헌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며, 종래의 도서관학에다 이 분야에 응용된 정보학을 흡수 통합시킨 독자성 있는 학문으로 정의하였다.³⁶⁾ 또한 문헌정보학의 주된 연구대상인 문헌정보는 문헌에 담긴 정보 즉 정보를 담은 문헌, 또는 ‘문헌’이라는 말과 ‘정보’라는 말이 합성된 새로운 개념으로서 종래 문헌이 지녀 왔던 것보다 외연을 좀더 넓혀 도서와 비도서에 수록된 정보는 물론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게 하여 문헌정보학으로의 학명변경은 70년대 이후 꾸준히 거론되다가 80년대 후반부터 대학이나 학계에서 새로운 학명으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물론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판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소개한 심우준의 우려도 비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그러한 비판은 대세라는 위력에 밀려 그다지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가장 대표적인 비판은 주된 연구대상인 ‘도서관’이라는 실체를 학명에서 너무 쉽게

35) 이수상, 앞의 글, p. 53.

36) 리재철, 앞의 글(1990), pp. 12-26.

배버렸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비판적 언급은 이봉순의 회고담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문헌정보학이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느껴요.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지 몰라도 도서관이 집을 가리키는 말이어서 학문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도서관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서관이라고 불어서 그렇지, 단순한 집은 아니어요. 도서관은 사서와 자료도 있고 독자도 있고 모두 다같이 공존하는 문화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서관을 헌신처럼 버렸으니 말이니 나는 그게 참 섭섭해요.³⁷⁾

나는 문헌정보학과라는 것이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목적은 결국 도서관 사서양성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도서관을 꼭 버려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또 그 도서관은 때버리고 문헌정보학만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관리, 경영, 레퍼런스, 북셀렉션 등등 이런 것들 모두 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일할 사서를 가르치면서 도서관은 안된다는 게 이게 모순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문헌정보학과에서 가르쳐서 도서관에 안 보낸다면 문헌정보학과라 해도 괜찮다고 봐요.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엄연히 도서관에서 일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학과명은 문헌정보학이라야 된다는 것은 좀 억지 같고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도서관이 싫지만 내가 가르친 학생은 도서관에 가서 일해라. 그게 말이 왜요? 도서관은 집이라서 그게 학문으로는 안된다. 문헌정보학이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내가 가르친 학생이 도서관에 가서 일하고 있지 않아요?³⁷⁾

하여간 도서관학이 그렇게 싫어요? 앞으로 박물관학, 병원학 등 이런 학문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학은 벌써 오래 전부터 자리잡은 학문이잖아요. 뭐 학문이라는 그 자체가 무슨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처럼 작은 어휘에 매달려 있지 말고 시야도 좀 넓히고 생각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질구레한데 막혀서 그것을 미화하고, 어휘만 붙들고 씨름하고, 이런 식으로 앉아 있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은 다 놓친다는 것이죠.³⁸⁾

37) 이수상, “한국문헌정보학 건재한가 - 이봉순 관장과의 대담”, 도서관문화 36권 1호 (1995. 1 2), p. 16.

38) 위의 글, p. 16.

39) 위의 글, p. 17.

V.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

1990년대 들어서부터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발전양상을 요구하는 조짐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문헌정보학은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도서관 현실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이론생산과 방법개발에 소홀했으므로 이를 타개하자는 움직임이었다.⁴⁰⁾ 그 움직임은 당시의 학문에 대한 비판적 자성의 목소리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최성진의 지적은 좋은 사례가 된다.

한국의 도서관봉사를 조속히 선진국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 시대의 도서관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이 사명 수행에 필연적으로 여러가지 이론적, 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렇게 제기된 문제 해결에 모든 문헌정보학자들이 전력 투구하여도 오히려 부족할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급한 일을 외면하고 한가롭게 문헌정보학의 주변주제를 연구하며 시간과 돈과 천체를 소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⁴¹⁾

그러기에 90년대의 주된 논의는 한국의 연구자들이 전력투구하여 한국사회의 개체도서관을 완성시키는 데 필요한, 즉 ‘한국적 문헌정보학’⁴²⁾을 요구

40) 대개 이러한 움직임은 다음의 글들에서 찾을 수 있다.

-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공동작업실, *학기논고집 1집*(1991), *학기논고집 2집*(1992), *학기논고집 3집*(1993), *학기논고집 4집*(1994), *학기논고집 5집*(1995), *학기논고집 6집*(1996).
- 최성진, “한국문헌정보학에 대하여”, *창사이춘회교수정년기념논집*(1993), pp. 81-112.
- _____, “기조연설: 광복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제33회 전국도서관대회주제발표논문집*(한국도서관협회, 1995), pp. 7-14.
- 김정근·김영기, “문헌정보학 연구에 있어서 글쓰기의 혁신은 가능한가”, *도서관학논집 22집*(1995), pp. 27-59.

41) 최성진, *앞의 글*(1993), p. 90.

42) 사실 ‘한국적’이라는 수식어가 그 동안 한국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어진 용어이기도 하지만, 너무 배타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기에 다른 표현을 찾으려고 해도 그에 상응한 대안적 용어를 찾기가 어려워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대체로 이 용어는 ‘우리’, ‘우리식’, ‘주체적’, ‘토착적’, ‘자기준거적’, ‘실천적’, ‘현실적합적’, ‘실사구시적’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었다. 비록 대학원 학생들이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실험적인 입장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다음의 인용문은 한국적 문헌정보학에 대한 진지한 바람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한국적 문헌정보학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현실상황에서 홀어져 있는 문헌정보현상에 관한 문제의식들을 인식하여 이를 실천가능한 형태의 이론으로 재구성하는 학문작업이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된 연구결과들은 문헌정보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언어로써 그 존재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나아가 학문으로서의 객관성과 일반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한국적 문헌정보학은 여타의 학문과 같이 한국이라는 실천론적 배경을 가지는 실천적 방법론을 견지하여야 한다.⁴³⁾

이처럼 학문의 현실성과 실천성을 강조한 것은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의 사회적 맥락에 따라 문헌정보학의 정당성을 견지하며, 동시에 학문의 적실성과 주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첫째 학문적 성격의 문제로서, 70년대 후반 이후부터 한동안 단절되었던 사회과학성을 다시금 회복하려는 요구이다. 둘째 실천성의 문제로서 한국에서의 문헌정보학 연구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현실분석에 근거하여 도서관현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실천가능한 이론생산에 철저해야 한다는 요구이다. 이는 토착화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한국문헌정보학은 서구추수적인 이론의 모방에서 벗어나 보다 자생적이고 자기준거적인 이론을 생산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한국문헌정보학은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서 척박한 한국사회의 도서관과 문헌정보와 관련된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토착적인 학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소 추상적인 구호로 들릴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대답의 하나로써 김정근과 김영기는 한국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이 주제선정과 연구방법, 그리고 문체에 이르는 일련의 ‘글쓰기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

43) “학기는고집을 워으면서”, 학기는고집 1집(1991), p. i.

였다.⁴⁴⁾

결국 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하게 된 한국적 문헌정보학은 한국문헌정보학이 갖는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제시한 일종의 학문체계에 관한 논의일 뿐만 아니라 실천적 학술활동을 요구하는 학술운동이었다. 이는 다학문 분야, 특히 한국사회과학이 걸어온 역사적인 과정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한국적 사회과학이 한국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걸맞는 이론과 실천을 모색한 것이라면, 한국적 문헌정보학도 마찬가지로 한국사회의 도서관 현상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이론개발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적 문헌정보학이 한국문헌정보학의 문제해결에 대한 하나의 고정된 정답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역사적 발전단계의 한 양상으로 여겨진다. 즉,现阶段 한국문헌정보학의 절실한 요구로서 한국적인 도서관 상황의 복잡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 내재된 모순을 하나씩 풀어 나가고자 하는 전술적 개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서양의 상황을 추수적으로 대입하고 답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생적인 학문활동과 현장의 실천을 이루고자 하는 데 지향점을 두는 것이다.

44) 김정근, 김영기, 앞의 글.

45) 해방 이후 비슷한 환경에서 출발한 한국의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교육학, 경제학 등의 사회과학 영역들은 학문의 식민성을 극복하여 한국적 사회과학을 확립하기 위해 지난한 노력과 실천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소개는 교수신문(1996. 4. 8), 부산일보(1996. 4. 23), 부대신문(1996. 8. 26, 9. 2, 9. 16, 9. 23)의 ‘탈식민성 탐론 연구’ 관련기사에 잘 나타나 있다.

VI. 결 론

한국문헌정보학은 한국사회의 개체도서관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되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기에 수준높은 단계는 아니었어도, 그와 같은 지향은 70년대까지 약 30년간 지속되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정보학이라는 다소 기술과학적 성격의 학문이 도입되면서부터 사회과학이라는 거시적인 접근으로 도서관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보처리와 관리라는 미시적인 정보현상에 치중하다 보니, 학문적 성격의 측면에서 보면 문헌정보학이 기술과학인지 사회과학인지 더욱더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그러므로 현대 문헌정보학, 특히 한국문헌정보학은 이와 같은 혼란을 극복하는 문제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결국 90년대 이후에 제기된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모색은 그러한 학문성의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며, 구체적인 실천전략까지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현대 한국의 도서관문제 해결의 핵심은 사회과학이라는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하고, 그 범주에서 미시적인 정보현상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도서관이라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인식되지도 못할 뿐더러 그 기능도 아주 낙후되어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것이 바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존립기반이 되어야 한다. 물론 보완적이거나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반 정보현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면 별문제가 없다. 그러나 개체도서관의 완성보다는 정보현상에 관심이 집중됨으로 인해 주객이 전도되는 양상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교정해야 할 것이다.

1995년 10월 한국정보관리학회 주최로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연구’라는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다.⁴⁶⁾ 당시 세미나의 초점은 다음의 두가지

46) 이 세미나는 이용남(한성대학교)의 연구책임하에 이희재(숙명여자대학교), 정동열(이화여자대학교), 고영만(성균관대학교)등이 수행한 공동연구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1995. 10. 30.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

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현단계 위상과 연구영역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이 나아가야 할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학문영역과 교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 정보학 + 서지학이라는 도식에서 정보학과 서지학의 학문적 성격을 살펴보고, 문헌정보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연구자들 스스로도 우리나라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이 어려운 일임을 인정하였던 바 세미나를 계기로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국 규모의 학회차원에서 지원되어 수행된 연구의 결과치고는 다소 편협된 시각의 주장이었던 관계로 토론시간에 비판이 많았다. 가장 중요한 비판의 요지는 지난 40년 이상 좋은 심든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한국문헌정보학을 해 왔던 역사성을 무시하였으며, 특히 문헌정보학을 정보학과 서지학의 통합학문으로 규정하는 구도는 너무 자의적이라는 것이었다. 엄연히 정보학과는 다른 도서관학 논문들이 우리 분야 학회지나 연구지에서 매년 쏟아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간과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정보학의 범주에 포함된다(서지학에도 포함되고 있다)고 하였기에 문헌정보학을 너무 단순화시켰으며, 기본적인 성격을 왜곡시켰기 때문이다. 당시 세미나의 토론시간에 발언한 정필모의 다음 지적은 그 비판을 잘 대변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발언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⁴⁷⁾

목차를 들여다보고 상당히 실망했다. 문제가 있다고 본다. 우리가 도서관학이라는 이름으로 적어도 1세기 동안 진행되다가 근래에 와서 문헌정보학으로 바꾸었는데, 모체인 도서관학은 빠지고 정보학과 서지학만 이야기가 되니 이상하다. 아마 연구자들이 정보학 전공자이기에 그런 것 같아 보인다. 목차 속에 도서관학이라는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데, 도서관학 빼놓고 문헌정보학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도서관학 정보학의 경계를 몰라서 빼버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정보

47) 이 인용문은 청중으로 있던 필자 가까이에서 행한 발언이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학은 1960년대 이후 우리 분야에 도입된 것이다. 목록전산화, 고서전산화가 정보학이라는 이런 사고는 틀렸다. 철학에 컴퓨터가 응용된다면 이것이 정보학인가. 우리는 도서관학 1세대요 동시에 문헌정보학 1세대이다. 우리 1세대가 도서관학이든 문헌정보학이든 실재를 잘못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선을 그을 수 있다고 본다. 서지학은 역사학의 보조과학이었다. 문헌정보학에서는 분류 목록이 바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수초빙할 때 문헌정보학은 전공이 없다. 정보학이라 해 놓고 팔호속에 자료조직이라고 하는 전공이 어디 있는가. 앞으로는 정보관리학, 정보검색학, 자료조직전공 등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내가 보기로는 정보학은 색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거기서부터 초록, 시소러스 등이 나온 것이다.

이상과 같이 90년대의 논의는 ‘실천성의 문제’, ‘한국적 문헌정보학의 정립’, ‘제3세계적 방법론’, ‘토착화 문제’, ‘탈식민성 담론’, ‘글쓰기의 혁신’, ‘주체적인 글쓰기’ 등 지난 시절의 논의와는 사뭇 다른 새로운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학문체제의 논의가 당시의 학문발전과 연관된 것이라고 본다면, 지난 시기의 논의보다 90년대의 논의는 실로 한국문헌정보학이 한국사회에 있어 개체도서관을 완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학술연구 방법론을 제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Growth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 with Respect to the Discussion of the System of Discipline

Soo-Sang Lee*

〈Abstract〉

This research pertain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many characteristics of the growing proces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with respect to its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f the system of discipline.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The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has gone through three distinct stages. The first stage spans the period from the late 50s to the 1960s during which there was an attempt to establish a relatively independent system of scholarship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lthough it was still heavily reliant on scholarship from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first period is, firstly, that there appeared, for the first time, an awareness of a need to escape the attitude of foreign-orientation and to develop our own scholarship. Secondly, an effort was made to constitute the scholarship as a science (social science). Thirdly, there

* Doctoral Candidate, Dept. of Library, Archives and Information Studies,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began a faint effort to import and apply Information Science.

The second stage covers the period between the 70s and the 80s, and saw the induction of Information Science begin in earnest and become the subject of education and research. The period was also marked by exploration of an alternative term to "Library Science", which was at the time being used. In addition, the period was a time of confusion for the examination of scholarship due to the induction of the new field of Information Science to what had already been a fragile structure of scholarship. This phenomenon served to intensify the doubts which had surfaced about the existing term of Library Science, and ultimately played a large role in the appearance of the new ter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course, there were a number of reasons which had made the change of term difficult, but it can be seen that the term change began in earnest after the change was adopted in the names of the university departments associated with the field in the late 80s.

The third stage covers the period after the beginning of the 90s. This stage saw the prominence of criticism and self-examination of the existing distorted foundational structur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s in Korea at the time, and, at the same time, a new methodology or research paradigms were advocated. It was a presentation of a new way of achieving a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order to understand and overcome not only the problems within the Korean libraries, but also with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Korea. This caused repercussions to be felt not only among academics, but also among those actually working within the library systems. It moved academics toward a more prac-

tical scholarship, it inspired the prominence of a new scholarly methodology called a reform in academic writing, and and even influenced specific research activities.